

세계 경제 동향

○ 국제 유가 급등락 반복, 변동성 지속 | '26-4-3 연합뉴스

- '26년 4월 첫째 주 WTI와 브렌트유는 모두 100달러 위에서 등락하며 높은 변동성을 이어감.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2~3주간 이란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브렌트유는 전일 대비 7.8% 오른 109.03달러, WTI는 11.4% 급등한 111.54달러에 마감함.
- 다만,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규칙을 오만과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상승폭을 일부 제한하였으며, 한국을 포함한 40여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방안을 논의하는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개최함.
- ❖ 미-이란 분쟁 장기화 시 에너지뿐 아니라 비료·사료 원료 등 농업 투입재 수급 차질로 이어져 글로벌 식량 공급망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짐.

○ OECD, 중동 분쟁 여파로 세계 성장 전망 하향 | '26-3-26 OECD

- OECD는 3월 중간경제전망(Interim Economic Outlook)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을 반영하여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.9%로 제시함. G20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망치가 기존 대비 1.2%p 높아진 4.0%로 상향 조정됨.
- 한국의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1.7%로, 직전 전망(2.1%) 대비 0.4%p 하향 조정되었으며, 물가 상승률은 2.7%로 0.9%p 상향 조정됨. OECD는 비료·LNG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성장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함.
- ❖ 중동산 비료 원료 의존도가 높은 한국 농업 부문도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농자재 가격 상승과 식량 공급 불안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함.

국내 경제 동향

○ 원/달러 환율 1,500원대 등락 지속 | '26-4-3 연합뉴스; 한국은행

- '26년 4월 첫째 주 원/달러 환율은 1,500원대에서 높은 변동성을 지속함.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강경 발언으로 환율이 1,519.7원까지 반등했으나,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방식을 오만과 협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4월 3일 1,507.6원으로 하락함.
-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외환보유액은 4,236억 달러로 전월 대비 39억 7,000만 달러 감소하였으며, 달러 강세 및 환율 방어 조치가 주된 요인임.
- ❖ 미-이란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이며,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경우 사료 곡물·비료 원료 등 농업 투입재 수입 단가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.

○ 3월 소비자물가 2.2% 상승, 석유류 급등 속 농산물 하락 | '26-4-2 국가데이터처; 한국은행

-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.2% 상승하여 전월(2.0%)보다 0.2%p 확대됨.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가격이 전년동월대비 9.9% 급등하였으나, 주요 농산물 출하 확대로 농축수산물이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환(1.7% → -0.6%)
- 한국은행은 석유류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이 상승폭을 제약한 것으로 추정하며, 4월 이후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물가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.
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○ 일본 농림수산성, 연료유·석유제품 공급 상담 창구 설치 ■ '26-3-31 일본 농림수산성

- 일본 정부는 비축유 방출 및 연료유 가격 급변 완화 조치 등 중동사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음. 이에 더해 농림수산성은 유통·거래 차질 발생에 대비해 사업자 의견을 접수하는 상담 창구를 설치·운영함.
 - 상담 창구는 농림축수산업 및 식품업 분야 계약 상황(유종·수량·가격·계약 기간), 향후 조달 전망 등을 접수하고 경제산업성에 정보를 공유함. 이를 토대로 경제산업성은 석유연맹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대응을 추진할 예정임.
- ❖ 중동 상황 장기화 선제적 대비 차원에서 국내도 업계 종사자 애로사항 접수 등 모니터링 채널 다양화가 필요할 수 있음.

○ 미국 농무부, 2026년 봄 작물 파종 의향 및 곡물 재고 발표 ■ '26-3-31 미국 농무부 농업통계청

- '26년 3월 31일 미국 농무부 농업통계청(NASS)은 「파종 의향 보고서」 및 「곡물 재고 보고서」를 발표함.
 - ('26년 파종 의향 면적) 옥수수 9,530만 에이커(전년 대비 -3%), 대두 8,470만 에이커(전년 대비 +4%), 밀 4,380만 에이커(전년 대비 -3%)로 전망
 - (곡물 재고) 3월 1일 기준 옥수수 902억 부셸(전년 동기 대비 +11%), 대두 210억 부셸(전년 동기 대비 +10%), 밀 130억 부셸(전년 동기 대비 +5%)로 전 품목 재고 증가
- 한편, '26년 3월 기준 국제 곡물 가격은 옥수수 178달러/톤(전년 동월 대비 -1%), 대두 430달러/톤(전년 동월 대비 +17%), 밀 219달러/톤(전년 동월 대비 +10%), 대두유 1,452달러/톤(전년 동월 대비 +55%)이었음.
- ❖ 중동 사태와 맞물린 국제 곡물시장 변동이 국내 식품·사료 등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.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○ 농식품부, 중동전쟁 관련 농축산물·비료 수급 점검 ■ '26-3-30 농림축산식품부

- '26년 3월 30일 농식품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농축산물·비료 수급 상황을 점검함.
 - (농산물) 대부분 품목의 가격은 전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가격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. 특히, 쌀은 정부양곡(10만 톤) 공급 이후 산지쌀값이 하락세로 전환됨.
 - (축산물) 가축전염병 및 사육두수 감소로 전년 대비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며, 계란·닭고기 할인지원이 확대되고 태국산 계란(224만 개)이 수입될 예정임.
 - (비료) 주요 3개사 요소 비료 완제품은 7월까지 공급 가능하며, 업체들은 동남아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요소 원자재 4만 9천 톤을 추가 계약함.

○ 농식품부, 중동전쟁 대응 추경 예산안 편성 ■ '26-3-31 농림축산식품부

- '26년 3월 31일 농식품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,658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.
 - (면세유) 시설원예농가 난방용 면세유 대상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78억 원 반영
 - (비료) 무기질비료 구입 지원 42억 원 반영, 비료업체 원료구매자금(융자) 3,000억 원 추가 반영
 - (기타) 농가사료구매자금(융자) 650억 원, 농축산물 할인지원 500억 원, 농식품 수출바우처 72억 원 추가 반영
- ❖ 주요 농자재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수입선 다변화가 추진되고 있으나,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지원 확대 및 비축 여력 확보 등 보완적인 대응 방안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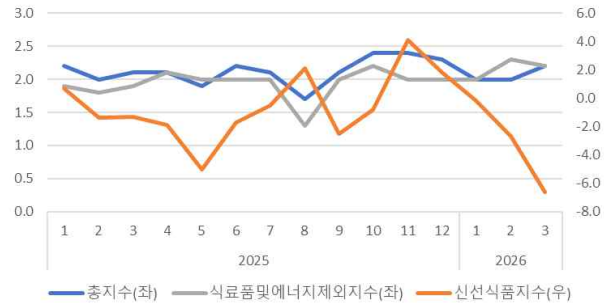
『26년 2월~3월 원/달러 환율 추이』

(단위: 원/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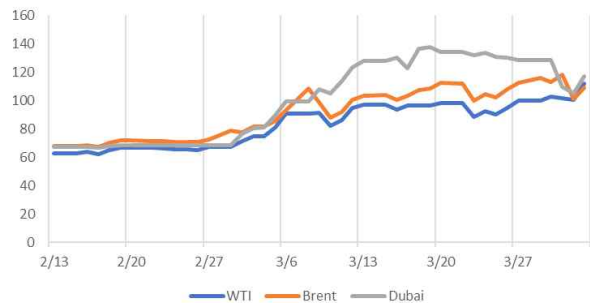
『25년~26년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』

(단위: %)



『26년 2월~3월 국제 유가 추이』

(단위: \$/Bbl)



『26년 2월~3월 국제 천연가스 가격 추이』

